
신도시 개발 분야 공무 국외출장 귀국보고

-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 -

출장자(보고자) : 광명시의회 부의장 구본신

신도시 개발 분야 공무 국외출장 귀국보고

I 출장개요

- 일자리와 주거가 복합된 자족형 신도시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신도시 조정 사례 견학, 스마트 시티, 탄소중립, 정원도시, 덮개공원 등 우리시 역점 사업 관련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신도시 적용방안 모색

II 출장기간

- 2023. 6. 20.(화) ~ 6. 28.(수) / 7박 9일

III 출장국가

- 출장국가 :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IV 출장인원

- 출장인원 : 8명 (광명시의회 1명/ 박승원시장외 업무관련 공무원 6명)

● 추진 세부일정

일시	계획 일정	일시	계획 일정
6/20(화) 10:30~ 18:00	▶ 이동 : 인천→마드리드 (14시간 30분)	6/24(토) 09:00~ 24:15	▶ 바르셀로나 시내 인프라 답사 ▶ 이동 : 바르셀로나→두바이(6시간 45분)
6/21(수) 09:00 ~ 18:00	▶ 마드리드 도심지역 인프라 답사 ▶ 누에보 노르테 프로젝트 기관방문 ▶ 세계문화유산 톨레도 지역 답사	6/25(일) 09:00~ 19:00	▶ 두바이 힐스 에스테이트 기관방문 ▶ 두바이 특화지구 답사
6/22(목) 09:00 ~ 18:00	▶ 마드리드 리오 공원 기관방문 ▶ 미디어랩 프라도 답사 ▶ 이동 : 마드리드→바르셀로나 (2시간 40분)	6/26(월) 09:00~ 19:00	▶ 두바이 서스테인너블 시티 기관방문 ▶ 두바이 특화지구 인프라 답사
6/23(금) 09:00~ 18:00	▶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추진국 기관 방문 ▶ 포르레노우 혁신지구, 산트마티지구 인프라 답사 ▶ 바르셀로나 시내 인프라 답사	6/27(화) 09:00 ~6/28(수) 12:05	▶ 이동 : 두바이→아부다비(2시간) ▶ 아부다비 마스다르 인프라 답사 ▶ 아부다비 도시 랜드마크 인프라 답사 ▶ 이동 : 아부다비→두바이(2시간) ▶ 이동 : 두바이→인천(8시간 40분)

● 스페인 주요 방문지

1. 마드리드 누에보 노르테 프로젝트

○ 주요 내용

- 스페인 마드리드 북부지역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철도청 중심의 민관합동 개발사업
- 철도시설로 인한 마드리드 북부지역의 단절을 연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철도역사, 마드리드 중심 거리(까스텔라나)와 연계하여 철도로 인해 발생한 불용 공간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 주요 의견

-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광명역세권 활성화(유희 부지 활용, 비즈니스 센터 조성, 정원 조성 등)에 시사점 제시, 향후 기술 공유 및 협력 요청

2. 마드리드 리오 공원

○ 주요 내용

- 마드리드 만자나레스(Manzanares)강을 따라 건설한 선형 도시공원
- 도시고속도로(M-30, 6차선)과 만자나레스강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지역을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4개소) 및 덮개공원(Lid park) 조성과 17개의 교량 건설로 연결하여 지역 통합 실현(동선 개선)
- 고속도로의 소음 및 매연 공해 완화와 특색있는 수변공간 조성에 따른 경관 개선으로 삶의 질 및 도시 가치 제고

○ 주요 의견

-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과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인상적, 특히 광명시에서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사업에 큰 시사점 제시, 향후 기술 공유 및 협력 요청
- 가능한 공원 공간 구성 / 특색있는 시설의 랜드마크화로 도시 가치 제고
- 광명시흥 신도시 내 목감천, 홍수조절지와 연계한 수변공간 등 대규모 신규 공원 조성
- 안양천 수변공간, 새빛공원 등 기존 대규모 공원의 리모델링 시 적용 검토

3. 22@Barcelona Project [아로바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 주요 내용

- 22@Barcelona Project의 22@(아로바)는 공업전용지역 코드 22a에서유래
- 포블레노우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추진(60% 이상 완료)
- 주거, 문화, 교육, 레저,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지식집약형 컴팩트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사회통합 추진

○ 주요 의견

- 주거, 문화, 교육, 레저,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재생
- 창업 및 기업 지원 기관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한 광명시흥 신도시, 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등 활성화

마드리드 누에보 노르테	마드리드 리오펜	22@Barcelona Project [아로바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 아랍에미리트 주요 방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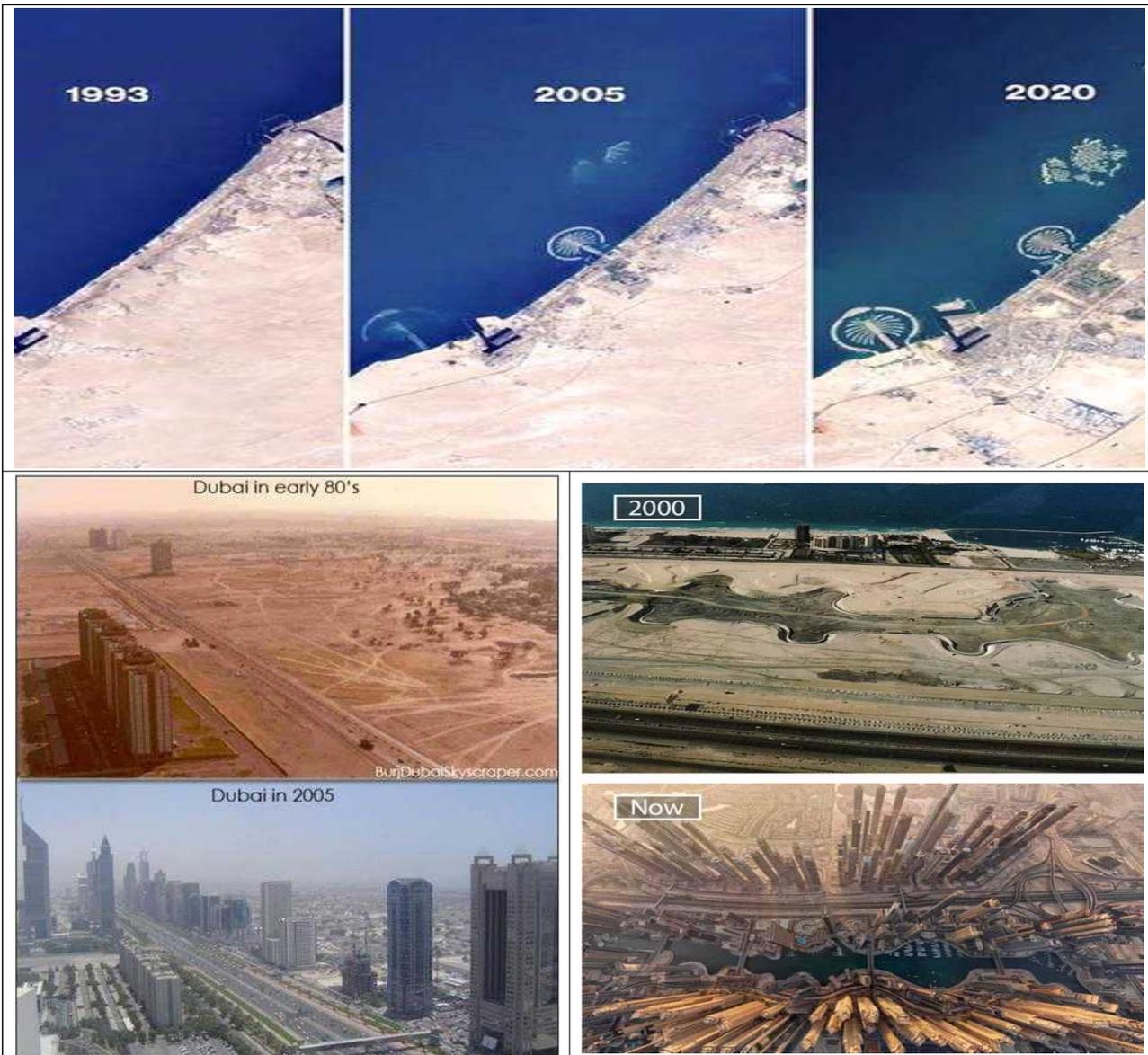
1. Dubai 2040 Urban Master Plan (두바이2040 도시 마스터 계획)

○ 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도심지를 제외한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미비, 차량 중심 (540대/1000명)의 이동체제로 환경오염,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문제 유발

☞ 대중교통 및 도보 이동의 필요성 대두

- 문화유산 보호, 관광객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위한 관광·거주지 지역 지속 개발, 대중교통 및 녹지대 조성으로 환경문제에 대응



▶ 두바이 도시 변천사

*자료출처 : dpreview.com, naverblog, instiz.net

2. 두바이 힐즈 에스테이트(Dubai Hills Estate)

○ 사업 내용

- 민간 부동산 개발사(Emaar)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상업, 주거, 공원, 레저 공간 조성(80% 이상 개발 완료)
 - * Emaar : 1997년 설립된 개발사로 2000년대 주식상장(국가지분 100% → 60%)
- 지구 중심부에 공원과 18홀의 골프장 조성이 인상적이며, 두바이 다운타운, 마리나 지구의 중간 위치로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가짐



○ 주요 의견

- 문화, 환경, 정부 운영 형태 등 두바이는 대한민국과 많은 차이가 있으나, 기업 유치에 위한 개방정책과 마케팅,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도 공원, 녹지의 조성 노력이 인상적,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ESG 경영에 대한 고민과 실천 강조

- 두바이 개발 배경, 과정, 기업유치 등을 학습하여 광명시 도입 아이템 발굴, 광명시, 도시공사, LH 등 기관 방문 시 가이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지 파견 추진 검토

※ 시사점 및 개발 착안사항

-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도시 특화 개발 전략

- 공원, 녹지, 레저 공간 확대, 수변 공간의 활용, 개발 사업 자체의 랜드마크화
 -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사업 시 도시 랜드마크화 방안 구상
 -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방안 구상

- 두바이 자매결연, 코트라 협력 등을 통한 현지 파견 검토



3. 서스테인너블 시티(The Sustainable City)

○ 사업 내용

-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주도하는 민간 부동산 개발사(Diamond Developers)에서 건설한 두바이 최초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 개발 전략

- 도시계획 특화
-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기본계획도

○ 주요 의견

-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에너지 자립 정책, 자원 재활용, 공동체 의식과 결속 강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 인상적이며, 바이오돔, 스마트팜을 활용한 도시농업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구상 필요

※ 시사점 및 착안점

- 두바이 주요 개발 사업의 특화 전략은 개발 사업 자체의 랜드마크화, 기후적 약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녹지 공간 확대, 수변을 활용한 공간 계획, 수평·수직적 복합화, 다양한 즐길거리·볼거리 마련로 사람들을 매료시킨다는 점이 특징적, 외국인,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투자 유도
 -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사업 시 도시 랜드마크화,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 구상 필요

● 총 평

-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23년 6월 20일 ~ 28일(7박 9일)까지 자족형 복합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스마트 도시 등 광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주요 도시를 견학,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경우 “도시재생” 측면, 두바이, 아부다비의 경우 “신도시 건설” 측면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안양천로 뚝개공원, 광명역세권 활성화 계획, 뉴타운사업 등 우리시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문화, 기후, 지리, 사회적·물리적 구조, 법령·기준 등 도시의 여건이 광명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각 도시의 개발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를 만들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도시 내에서 살고, 일하며 즐길 수 있는 작주락 (직장,주거,즐길거리)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나” 보다는 “우리” 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기존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유희 공간과 낙후 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과 사회통합을 실현하였고, 두바이의 경우 열악한 기후와 토지 조건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꿈이 현실이 되는 개발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신도시 건설을 실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 과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라는 문제도 상당히 크게 존재해 보여 해결책 마련의 숙제가 남아 있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의 여건은 다르지만 각 도시 개발 전략에서 알 수 있는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광명시의 특색을 살리며 특화 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고민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광명시 만들기 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준비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고 시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노력이 필요함을 연수기간 내내 느끼며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정활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